

[기획] >> 4면
글로벌캠퍼스 셔틀버스 논란

[사회] >> 8면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대체품은?

[학술] >> 9면
살충제 계란 파문

[인물] >> 12면
청년창업가 한승오, 열정을 요리하다

어렵게 얻어낸 생리공결제,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때

지난 8월 31일 학사지원센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시행한다는 공지를 내렸다. 제도의 도입에 따라 어떤 기대와 우려가 예상되는지 알아보자.

사진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글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사이버한국외대 제5대 김종렬 총장 취임식 열려

지난 1일 오전 11시에 우리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사이버한국외대 제5대 김종렬 총장(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 김종철 학교법인 동원 유영회 이사장, 김인철 전임 총장,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 위원회 위원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민동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등 내외빈 3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이버한국외대가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며 "사이버한국외대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총장은 "고령화 현상과 급변하는 지식환경 속에서 우리학교는 사이버 교육공간을 뛰어넘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리드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며 "교수가 마음

껏 연구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 온·오프라인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세 명이 김종렬 신임 총장에게 축사를 보냈다.

김 신임 총장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주립대학교 채플 힐 캠퍼스(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어 1988년부터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계청 전문위원, 서울경제발전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경제학 101>, <경제발전론>, <테일러의 핵심 경제학> 등의 저서와 여러 논문을 발표하면서 경제와 통계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승준 기자 94lee@hufs.ac.kr

"김사무엘이 준다고?" 서울캠퍼스서 한 달간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운영

우리학교가 이번 한 달간 학생식당의 아침 식사 메뉴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한다. 이번 달 6일부터 서울캠퍼스 학생식당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아침 식사 메뉴를 1,000원에 제공한다. 캠페인 첫날인 지난 6일에는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와 가수 김사무엘이 서울캠퍼스를 방문했다. 사회공헌에 나선 이들은 500인분의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침밥을 받은 김지연(사법·프교 17) 씨는 "평소에 아침을 걸렀는데 학교에서 아침을 제공한다는 말에 일찍 등교했다"며 "아침밥도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볼 수 있는 1석2조의 경험이였다"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 교



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2017년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이다. 농정원은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운영을 맡은 대학교에 한 달간 급식 쌀을 지원해준다. 캠페인은 아침밥을 먹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2012년 순천향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난해 서울대와 전남대, 부산대에서 시행됐다. 한편, 품질이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신문사와 각종 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 2년 전 TV 프로그램 '능력자들'에서는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을 맛보고 다니는 '덕후'가 출연해 우리학교 학생식을 1위로 꼽기도 했다. 우리학교 학생식은 2,000원 안팎의 가격과 맛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입니다.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어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규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7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2017.08.07~2017.12.22
	방학특별과정	7월, 1월	2018.01.10~2018.01.25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2017.10.16~2017.12.22
주말과정	15주 주말과정	2월, 8월	2017.08.26~2017.12.09
	FLEX 대비과정	3월, 9월	2017.09.09~2017.12.23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9월	2017.09.02~2017.12.16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li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교육특성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입교수 튜터링) 원어민(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fittc@hufs.ac.kr
정규과정	02-2173-2515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 3518	edulife@hufs.ac.kr

서울캠 총학, 괄 단기 어학연수 진행 논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제51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서울캠퍼스 재학생 20명과 함께 괄 대학 하계 단기 어학연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다른 괄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먼저 외국어 학습을 위해 현지에서 언어 및 생활환경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학연수지만 이번 괄 어학연수의 경우 언어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어를 습득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즐거움을 위한 문화 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행사를 주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괄 단기 어학연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하여 학생 자비 및 우

리 대학 교육지원 장학금으로 지원자를 파견하고 별도의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등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재정으로 외유성이 짙은 대중영합적 행사를 기획·추진하는 데 대한 타당성 △지원자 선발 및 진행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비대위 체제의 학생회가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상황의 적절성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백유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총학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행사 진행 업체는 외대어학연구소에서 담당 했고 지원자 부족으로 전원 선발이 됐다”고 답했다. 목적에 맞는 커리큘럼과 투명한 일처리를 통한 비대위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박주원 기자 94swj04142@hufs.ac.kr

동아리연합회 Hufasca 전 공연예술분과장 성추행 혐의로 탄핵

지난 1일 우리학교 동아리연합회 Hufasca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연예술분과장 탄핵이 의결됐음을 공고했다. 이날 연합운영위원회에서는 최 전 공연예술분과장이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아 탄핵사유로 소추돼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됐다. 이어 이번 달 7일에 게재한 탄핵사유 설명서에는 최 전 공연예술분과장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8월까지 교내 및 학교 주변에서 동아리연합회 간부를 대상으로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추행을 고의·상습적으로 행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 회칙 위반과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분과장 권한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연예술분과장을 탄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상 탄핵결정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던 이번 탄핵결정이 우리학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는 이번 달 20일 진행될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해당안건 공유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추후 탄핵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올 예정이며, 최 전 공연예술분과장 탄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는 이번 달 15일까지 학생회관 216호 앞 민원함 또는 카카오톡 익명대화방(http://open.kakao.com/o/sjuYlmw)으로 할 수 있다.

이재권 기자 94dlwo@hufs.ac.kr

서울캠퍼스서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초청 특강 열려



▲이사벨 세인트 말로 초청 특강 단체사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이사벨 세인트 말로(Isabel de Saint Malo de Alvarado)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부 장관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이사벨 세인트 말로 부통령은 “파나마의 통합 민주주의, 성장과 일류발전”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지리적 특성, 물류, 서비스업 등



▲연설 중인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을 기반으로 성장한 파나마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에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및 LDX(Language and Diplomacy)학부 재학생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특강을 시작하기 전 이사벨 세인트 말로 부통령은 김현택 대외부총장을 만나 우리학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종진 국제교류처장, 정경원 중남미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준 기자 94lee@hufs.ac.kr

김진우 교수, 법학연구 분야 논문 피인용 횟수 '2위'



우리학교 김진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법학분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논문이 인용된 학자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KCI 시스템이 구축된 2004년 이후 이번 해 7월까지 김진우 교수의 논문은 총 586회 인용됐다. 현재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 교수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낸 바 있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017 흑해영화제 개최

김백기(통번역·독일어)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와 함께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17 흑해영화제>를



▲씨네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개최했다. 흑해영화제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흑해지역 대표 영화 6편을 무료로 상영한 뒤 씨네 토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영화제 축하를 위해 세르게이 라브렌티예프(Sergei Lavrentev) 모스필름 프로그래머, 스네잔카 토도로바(Snezhanika Todorova) 불가리아 기자 협회장, 그리고 영화 <우수수섬>의 게오르게 오바슈빌리(George Ovashvili) 감독이 한국을 찾아 관객과 함께했다. 또한 페타르 안도노프(Petar Andonov) 주한 불가리아대사관과 니콜로즈 아프카지야(Nikoloz

Apkhazava) 주한 조지아대사가 씨네 토크 및 개막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흑해지역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가 혼재되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이 행사는

흑해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영화’라는 매체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기호를 통해 새로 해석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행사다. 이에 더해 일반 시민들도 영화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학술적 논의의 장이 확장돼 흑해지역 연구에 대한 당위성을 한층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제5차 콜로кви엄 개최

지난 9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는 사이버관 303호에서 5차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협약을 통해 공동 TESOL수료증 과정을 개설한 후 그 과정 중 일부를 공개 특강으로 제공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주제의 온라인 영어교육, MOOC, <TESOL Foundation and Methods> 주제의 조기영어교육, 영어교육이론에 대한 시사점이 그 내용이다.

한편, 국내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는 TESOL, 통번역, 실용영어라는 세 가지 세부 전공을 통해 외국어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정규 수업 이외에 매주 토요일 혹은 평일 원어민 교수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무료특강, 화상강의를 제공한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www.gsiass.hufs.ac.kr

대한민국 지역학 연구의 중심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지역학 엘리트를 꿈꾸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및 입학설명회

Spring 2018 Application Schedule & Information Session

Preparing Leaders Who Can Change the World
HUFSS GSIASS SPRING 2018 ADMISSIONS OPEN!

원서접수 Submission of Application	1차: 2017. 9. 28(목)~10. 12(목) / 2차: 2017. 11. 15(수)~11. 23(목) 1 st Round: Sep 28(Thu) ~ Oct 12(Thu), 2017 2 nd Round: Nov 15(Wed) ~ Nov 23(Thu), 2017
전형일 Interview	1차: 2017. 10. 28(토) / 2차: 2017. 12. 9(토) 1 st Round: Oct 28(Sat), 2017 / 2 nd Round: Dec 9(Sat), 2017
입학설명회 INFORMATION SESSION Date & Venue	2017. 11. 8(수) 오후 6시, 한국외대 미네르바 국제회의실 Nov. 8, 2017(Wed.) 6:00 pm /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Minerva Complex, HUFSS Seoul Campus
모집전공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Applicable Majors (Master's Doctoral, Integrated Master and Doctoral)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아세안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CIS학과, 유엔연합학과, 미국·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석사), 유엔평화학과(석사), 국제관계학과(박사), 국제학과(석사/신설) Korean Studies, Chinese Studies, Japanese Studies, Indian and ASEAN Studies, Middle East and African Studies, Russian and CIS Studies, European Union Studies, Latin American Studies, U.S. and Canadian Stud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Master), U-PEACE(Master), International Relations(Ph.D), International Studies(Master, Newly opened from Spring 2018)
특징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유엔평화학과는 한국외대, 유엔평화대학 수석후 공동석사학위 부여 국제학과 신설 모집 (석사과정)
Advantages	Scholarships given to all new students (Full/Half/Partial Tuition) Conferring two master's degrees from UPEACE and HUFSS (Department of U-PEACE International Studies(Master) newly opene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Y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스마트 경비시스템 글로벌캠퍼스를 지킨다!

80만 평의 대규모 캠퍼스 부지를 자랑하는 글로벌 캠퍼스에 스마트경비시스템이 구축됐다. 스마트경비시스템은 경비인력과 CCTV에 의존하던 과거의 경비방식을 넘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보안시스템을 말한다. 글로벌캠퍼스는 넓은 캠퍼스 규모를 감안하여 지난 1월부터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업체를 ADT캡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구축된 주요 시스템은 △여학생화장실 비상벨△Emergency Call△각 건물과 교내 셔틀승강장의 비상 원격 통화장치△Sky View 카메라 등이다.

첫째, 글로벌캠퍼스의 모든 여자화장실 각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됐다.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과 백년관 1층에 위치한 통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돼 안전요원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둘째, Emergency Call은 인문경상관 오솔길, 어문학과 연구동 앞, 명수당, 기숙사 오솔길 등 주로 캠퍼스의 외진 곳이나 방과 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됐다. 특정 이상 음원(비명소리, 싸우는 소리 등) 발생시 회전형 카메라가 음원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포착해 통합상황실에서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통화와 출동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문경상관 승강장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 CCTV

▲도어폰

◀기숙사 오솔길 Emergency Call

학생들은 AED의 비치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캠퍼스 곳곳을 광역으로 비추는 Sky View카메라, 공학관 실내 CCTV의 200만 화소 업그레이드, 투척용 소화기 500개 비치, 건물 옥상출입문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이 추가돼 글로벌캠퍼스의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이승준 기자 94lee@hufs.ac.kr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수놓은 '취업희망나무' 메시지



▲학생들의 메시지로 가득한 취업희망나무.

조사하고 이를 통한 희망프로그램의 수요 조사 및 하반기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취업희망나무의 가지는 '일하고 싶습니다', '취업해서 외대를 빛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외대 친구들이 취업까지 같이 힘내자!', '동시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등과 같은 취업 관련 메시지로 가득했다.

한편 최성은 진로취업지원센터 센터장은 "희망나무에 걸린 학생들의 소망을 읽어보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희망나무에 걸린 학생들의 소망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2학기 개강을 맞아 백년관 1층 로비에서 '취업희망나무 소망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인지도를

우리학교 김인경 프로 골프선수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지난달 7일 김인경(국제지역·국제스포츠 12) 프로 선수가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인경 선수는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하며 이번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한 잉글랜드의 조디 유와트 셰도프(Jody Ewart-Shadoff) 선수를 2타차로 따돌렸다. 생애 첫 메이저대회에 등극한 김인경 씨는 시즌 세 번째 트로피를 수직했다. 이번 우승으로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수집한 트로피는 12개로 늘었다. 2015년에



▲브리티시 여자 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김인경/사진=한화 제공

세운 최다승 기록인 15승의 경신에 청신호를 켜 것이다.

한편 김인경 선수를 배출한 국제스포츠레저학부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됐다. 해당 학부에서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스포츠 외교 및 행정, 마케팅, 언론 등 스포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환경부 장관상 수상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이 한국리모델링협회 주최하는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본질을 확립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능을 재창조하여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됐다. 글로벌캠퍼스는 올해를 포함해 건축 리모델링 관련 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글로벌 캠퍼스 어문학과는 2015년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한 '2015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 국토부 장관상(대상)을, 인문경상관은 2016년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녹색건축한마당'에서 국토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제13회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 대학생 부문 우리학교 김형욱 우승

지난 1일 대전 컨벤션센터 글랜드볼룸에서 제13회 한국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 결선이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대전마케팅공사와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가 후원했다. 국가대표부문, 루시옹와인부문, 모젤와인부문, 대학생부문에 이뤄진 이 대회에서 우리학교 김형욱(인문·언어인지 09) 씨가 대학생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김형욱 씨는 비전공자 최초의 우승자이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국가대표 부문과 마찬가지로 1차 필기 예선과 2차 블라인드 시음 준결선을 통해서 최종 3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3인이 결선에서 금, 은, 동상을 놓고 겨뤘다. 결선은 와인디깅팅 서비스(주어진 시간 안에 고객



에게 와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디깅팅 서비스를 시연하는 과제), 음식페어링(사신의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는 과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총 6종(와이트, 로제, 레드와인, 전통주, 증류주, 워터)의 음료를 맛과 향으로만 알아맞혀야 하는 과제)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했다. 예선, 준결선, 결선 결과를 모두 합산해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형욱 씨는 "비전공자로서 참가해 우승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된다"며 "졸업 후에는 우리학교에서 갖고 닦은 외국어 실력을 기반으로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와인 양조 경험을 쌓고 싶다"고 전했다.

박지민 기자 94pjimin0303@hufs.ac.kr



www.fila.co.kr



사라진 노선, 불편한 학생들

이번 학기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새로 조정된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본과 안양역, 범계역 3개의 노선을 범계역으로 단일화해 운행하고 이문과 노원으로 나뉘어져 있던 하교노선을 이문노원 하나로 통합 조정해 운행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통학버스의 승차권 가

격도 200원이 인상되는 등 학생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통보하는 식으로 공지사항에 올라와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피해상황과 총학생회의 입장,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 변경된 셔틀노선

지난달 22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통학버스 노선조정 및 요금인상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통학버스 노선 중 산본과 안양역, 범계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노선 3개를 범계역으로 단일화해 운행하고, 이문과 노원 2개의 하교노선을 이문노원 하교노선으로 통합해 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이문하교 버스는 지난 학기까지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해 태릉입구역으로 바로 갔지만, 이번 학기부터 지난 학기 노원하교버스를 노선인 △하남애니메이션고△양정역△도농역△구리롯데백화점을 거쳐 태릉입구로 간다. 기존 최종 목적지인 노원역은 정차하지 않는다. 또한 범계역으로 노선이 단일화 돼 기존 안양역하교버스와 산본하교버스의 최종목적지인 산본역과 안양역은 정차하지 않는다. 지난 학기까지 산본하교버스를 이용했던 고씨는 "산본하교버스의 자리는 항상 3분의 2정도 찻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학생통학버스 단일화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다한 이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통학버스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1교시 위주로 시간표를 이미 짜서 당황스럽다"며 "평소 한 시간 반 동안 가는 거리를 요즘은 두 시간 반을 잡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통학버스의 요금도 기존 1,300원과 2,200원은 150원 인상돼 각각 1,450원과 2,450원으로, 기존 1,800원과 2,100원은 200원이 인상돼 2,000원과 2,300원으로 인상됐다.

◆ 학생들의 불만

기존에 운행하던 이문하교버스와 노원하교버스로 나뉘어져 있던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버스 중 하나다. 통학버스 정류장에는 하교시간만 되면 줄을 길게 늘어서고, 버스좌석은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하교 버스를 통합하면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못 타거나, 고속도로에서 서서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노선 조정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노선 조정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박재성 총괄지원팀 차장은 "이번 통학버스 노선통합조정은 △탑승률(아래 표 참조)△대체정차지△여객 노선△교내 외 주거현황△버스지원금 등이 고려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총학을 통한 설문이나 유선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 중심으로 정차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간정유지를 많이 생성하게 되면 운수사업법상 기존 노선버스 영업권 침해에 따른 위법의 위

구분	등교	하교	비고
산본	23.8	23.3	범계통합
안양역	23.5		
범계역	33.7		
노원하교		21.3	노원정차폐지

▲ 조정된 노선들의 지난 학기 탑승률

협성이 있다"면서 "향후 2018년 1학기에도 권역별 유사중복노선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와 총학생회의 사전공지가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날짜는 지난달 22일로,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학생들에게 공지됐다. 이는 학생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통학이 어려워질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기숙사 신청도 이미 끝난 기간이다. 이에 박재성 차장은 "1학기에 총학생회와 통학버스 민원사항 접수 및 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학버스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총학생회가 실시



▲이문통학버스 노선 변경 전



▲이문통학버스 노선 변경 후

한 통학버스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과 개괄적인 노선조정 방향과 내용을 7월 말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6일에 총학생회 측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문을 먼저 전달하고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학교는 총학생회 채널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총학생회 측은 학교 공지 시점에 맞춰 공고하고자 했던 것으로 상호 간 공지 부분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 또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박재성 차장은 "학생 통학버스 관련 예산은 연간 12억이 넘게 소요된다"면서 "학생이 통학버스를 1회 이용하면 약 4,200원의 학

교지원금이 지불돼 학생개인부담금을 수년간 최소화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위탁계약이 8월 말 3년 만기로 업체선정 공개입찰을 진행해 현재위탁업체가 재선정됐다"면서 "업체는 3년 전에 비해 단가인상을 요구했고 경직성 예산이 많은 학교예산은 추가확보가 불가능해 노선조정으로 비효율적 탑승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환해 다수의 학생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 학생들의 화살은 총학생회에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화살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를 향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통학버스 변동사항과 같이 중요한 안건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이바우솔 총학생회 정책국장인 "당시 학교 측과 업체간 계약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계속 변동이 생겼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학교와 총학생회가 공지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과 업체간 계약에 참여는 불가능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피력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면서 "학생들 개개인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해 답변서를 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학기 설문조사를 통해 셔틀버스 이용 중 불편했던 점, 셔틀버스 추가 노선 개설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 약 600개 정도를 학생들에게 받아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바우솔 씨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학교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후 학생들의 민원사항을 학생처장과의 면담과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학교 측에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통학버스는 지난 수년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책임졌다. 그러나 학교와 총학생회의 대응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이 감수하는 불편이 커지고, 학교와 학생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 골을 메꾸기 위해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능한 선에서 학생들의 복지 혜택을 최대로 줘야 한다. 고씨는 "학교 측이 학생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재학생들을 배려해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아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학생통학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차장은 "통학버스의 운영규모나 지원금은 수도권 최고 수준이다"라면서 "학교 나름의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하고 배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응시간 부족에 따른 학생의 불편은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바우솔 씨는 "통학버스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총학생회측으로 연락달라"고 밝혔다.

이재권 기자 94dlwo@hufs.ac.kr



아름다운 당신, 신나는 교원의 꿈!
달콤한 교육 이사가 펼쳐지는 곳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인가?◆

◆ 전형 일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017. 10. 30(월) 14:30 ~ 11. 3(금) 21:30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교육대학원 교학처	-기간 중 인터넷 24시간 작성 -우편 제출 : 11. 3(금) 17:00까지 도착
면접 고사	2017. 11. 18(토)	-본교 대학원건물	-면접시간은 11. 17(금) 16:00 이후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17. 12. 7(목) 16:00 예정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gse.hufs.ac.kr) 공지	

◆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전공	모집전공	모집인원
교육학 석사 (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스페인어교육 • 다문화교육 • 수학교육 • 교육경영과 리더십 • 독서논술교육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어린이영어교육 • 일본어교육 • 역사교육 • 컴퓨터교육 • 상담심리 • 창의융합인재교육 	000명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2421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요강 및 입학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내 최대 최고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및 전공교수진
 하나, 특화된 교원양성 과정 및 교원재교육 과정
 하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하나, 활발한 학생회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

하나, 국내 최대 최고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및 전공교수진
 -국내 최대 교육대학원 전임 교수진 : 어문교육·자연·교육학계열 등 총 26명
 -특화된 국내 최고의 전공 교수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외국인 전임교수 700여 명

하나, 특화된 교원양성 과정 및 교원재교육 과정
 -1981년 개원 이래 4,000여 명의 졸업생 배출
 -어문교육계열, 자연·공학교육계열, 교육학계열 총 17개 전공 중 11개 전공 '교원' 자격 취득 가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가능
 -다문화교육전공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취득 가능
 -독서논술교육전공 '독서지도사' 2급 자격 취득 가능

하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명문대학교 교환학생, 학점 이수, 교육실습, 해외탐방 등 프로그램
 -학교 현장 이해 및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장, 교감, 장학사, 연구사, 교사, 교육행정가 등 교육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하나, 활발한 학생회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
 -학생회 주관 교육학 특강, 임용고사 전공 특강, 각종 기념 행사 등 활발한 활동
 -교육대학원 교수·학급 자료센터, 임용고사 준비실, 세미나실, 전공 강의실 등 운영
 -총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발전 방안 강구
 -현직 교원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지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2 '경제 India' 이다



김응기
인도어과 겸임교수
(주)비티엔 대표

예능이나 정치 프로파간다 성공여부는 리액션에 좌우된다. 화두를 꺼내는 사회자나 듣는 청중 모두 죽이 맞아야 프로그램 목적이 살고 흥도 산다는 것이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인도시장을 알아봅시다.' 라는 멘트로 인도경제관련 인터뷰가 시작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다. 이럴 땐 진행의 맥을 끊는 일이지만 맞장구를 칠 수 없는 잘못된 첫 단추이다. 인도 팩트에 민감한 필자의 모난 성격은 몰지각한 기자의 멘트부터 정정시키는 예기치 않은 리액션을 하게 된다.

되풀이 강조하지만 인도는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미 떠오른 'Arose' 시장이고 또한 크게 솟구쳐 올라 있다. 발표시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국제경제동향 조사기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현재와 미래의 인도경제규모가 뚜렷하게 예측된다. 2010년엔 구매력기준 GDP 1위가 미국이었고 다음이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였다. 이를 두고 보아도 인도경제는 2017년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는 '이머징'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1위에 오르고 미국이 2위 그리고 인도가 일본을 앞지르고 3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 기준으로 인도가 이미 G3이다. 아마도 2020년이나 2030년 전망에서 세계경제대국의 순위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부동의 1위 그리고 미국과 인도가 2,3위를 차지한 순위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도가 3위라는 것에만 있지 않다. 구매력 GDP(PPP)의 변화를 주목하여야 한다. 미국의 PPP가 2020년 대비 10년 후 2030년엔 약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도는 같은 기간 160% 증가하여 순위에선 여전히 3위지만 총량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다. 즉, 미국 경제규모와 인도의 규모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를 무리해서 반올림 한다면 결국 동급G2, 인도가 될 수 있다. 과장법에 능한 인도인이나 스스로 G2라 외칠 것이다. 그러다고 한들 사실 이를 부

정할 도리가 없는 입장이다.

◆**통상외교에서도 '경제' 인도의 존재감은 금강**
민중이 밝힌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강 외교의 울타리를 넘어 6강으로 가야 한다고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를 인도로 보냈다. 어디 인도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수준의 정치 외교안보 강대국으로 여기고 특사파견을 결행하였겠는가? 인도의 경제, 즉 '경제인도' 를 이유로 우리경제에 영향을 끼칠 강대국의 일환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이다.

한국 무역상대국 237개국 중 상위 7위, 무역수지 흑자로 연 7~8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시장이란 점만 두고서도 인도가 대외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속성상 매우 중요하다는 것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작년 이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사드발발 중국과의 갈등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추락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트 차이나' 를 찾는 우리에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G3구매력을 가진 인도시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뻐있을까?

단지 시장으로서 인도경제를 말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시대에선 너무도 단편적인 이해이다. 한·인



▲IT기업 인포시스 본사 전경

도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우리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장래의 G2가 될 인도가 밟고 있는 남아시아 주변국 및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반 소비재 시장은 물론 통신 등 기간산업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펼치는 글로벌 활동이 한국경제의 대외관계와 만날 때 어떻게 경쟁되는지 아님 어떻게 협력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진즉 이를 간파한 일본경제는 경제대국의 위상에 올라선 인도와 어렵게 경쟁하기보다는 실익으로 협력한다는 전략으로 최근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 항구에 양국공동 경제특구설치에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펼치는 수많은 인도 러브콜 중 한 예

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외교에서 인도의 위상은 금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인도와 그들의 삶에 흥미의 앵글을 맞추고 인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오리엔탈리즘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수준 낮은 한국 언론이 깨닫지 못하는 인도경제의 현재 가치는 금강이고 미래의 가치 역시 황금이다.

◆'경제인도' 이해는 미래지향의 청년세대에게 시대교양 필수

양자관계로만 이어지는 대외통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최근 사건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사건은 곧 국내 양계업과 식품업에 태풍으로 던져졌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으로 한·미 정부 사이에 전개된 사드문제는 결국 한·중 통상관계 악화로 번졌다. 글로벌 경제시대이다. 이 와중에 인도 경제란 변수까지 글로벌 경제무대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이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고 있다.

인도전공학생조차 진로에서 인도와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마당에 전공 이외 학생에게 인도 경제가 무슨 대단한 의미일지나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제인도가 미래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필자는 강조한다. 짧게는 수 년 길어도 10년 내에 활동의 주역에서 비켜서는 지금의 기성세대는 경제인도의 존재에 대해 애써면 직접 연관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나 해외 생산, 소프트웨어개발과 서비스, 제약원료와 백신개발과 공급 그리고 일상의 식품소재 수입 등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글로벌 가치를 지어내는 GVO의 위치에 선 인도경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경제인도' 이해는 필수이며 피할 수 없는 존재 'Inevitable India' 이다.

이미 구매력 규모에서 G3에 오른 인도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대비는 진즉 했어야 할 일이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다. 오늘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인도, 경제인도는 청년세대에게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킬리만자로의 문학 속으로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 폭풍 찌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운 날씨에 지쳐 저 뒤로 미뤄뒀던 독서 계획이 생각이 났다. 올해가 시작되고 책을 많이 읽으리라 결심했던 내 다짐이 기억났다. 무슨 책이든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이번 호에서는 평소 비교 관심 갖지 못했던 나라의 독서 문화와 책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James Nyachae Michira(Kenya)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듯 요즘 케냐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영화, 티비, 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를 더 좋아하고 시간을 많이 쓴다. 이런 미디어들은 두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인 활동이라서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책을 중요시 여기고 꾸준히 읽는 사람도 많다.

케냐 사람들은 소설을 사랑한다. 길고 짧은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또한 노벨 수상자와 같은 유명인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곤 한다. 유명인의 성공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고자 열심히 읽는다.

아프리카 케냐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려면 응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 작가의 작품을 추천한다. 그의 작품에는 동아프리카 문화와 정신이 잘 나타나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 자유를 향한 갈망과 독립정신, 투쟁이 잘 드러난다. 또한 점차 서구화 돼가는 아프리카 사회를 비판하며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을 강조한



다. 작가는 영어 대신 자신의 부족 언어인 키쿠유어로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 톨의 밀알', '피의 꽃잎들', '십자가 위의 악마'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응구기 작가의 작품 외에도 일반적인 아프리카 역사책과 앞서 말한 자서전을 읽어보는 것도 아프리카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현욱 기자 95hwanwook3132@hufs.ac.kr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1974년 9월 1일, 40년 전통, 국내 최고의 어학교육기관 -외국어연수원을 부설하다



▲어학생활관 개관 (1977.2.1)



▲외국어 연수원 제1기 이수식(1975.2.28)



▲외국어 연수원 어학생활관 원생 모집 광고(1978)

외대의 특성과 정체성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과 이를 통한 국가, 사회에의 기여다. 1974년에 설립된 외국어연수원은 이러한 외대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 중 하나다.

외국어연수원이 설립된 1970년대에는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공무원과 무역상사 직원 등은 해외에 파견돼 국가 외교와 무역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더불어 이들에게는 외국어와 이문화 교육을 담당할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도 필요했다. 1973년 10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합숙 어학 교육이 가능한 어학생활관의 건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정부는 '단기 외국어 훈련과정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해 당시 외국어 및 외국학 전문 교육 기관이었던 외대 캠퍼스 내에 생활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무역협회에 지원을 받아 이듬해 외국어연수원이 설립됐다.

1974년 9월 1일 첫 수업을 시작한 외국어연수원은 개설 당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등 5개 언어의 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해외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독일에 파견될 국방부 소속 간호장교단을 대상으로 독일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1980~90년대까지 과학기술부, 문교부, 외교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어학 훈련 및 전형 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어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외대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85년부터는 일반인, 1989년부터는 재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외국어평가원(1995년 설립)과 통합해 외국어연수평가원이라는 명칭으로, 종합 외국어 교육평가 서비스 기관을 지향하며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배움터 학내의 외국어연수평가원 건물은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지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어학생활관이라는 명칭으로 1977년 2월에 개관했다. 이전까지 1~3층은 행정실 및 강의 공간, 4~5층은 기숙 시설로 이용하다가 2014년 리모델링 전 공간을 강의실로 교체했다. 현재는 연수원의 강의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는 한국어문화교육원의 강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어연수평가원은 한국외대의 외국어 교육 전문성과 교수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어 위탁교육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해외 연수를 능가하는 실질적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00여 명 이상의 정부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임·직원이 다양한 수준의 외국어 훈련을 마쳤고, 이들의 향상된 언어 능력은 국제무역과 외교, 그리고 문화분야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어렵게 얻어낸 생리공결제,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때



지난 8월 31일 학사지원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건강권, 모성보호 확대 요청 그리고 단과대학 및 학생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시행한다는 공지를 내렸다. 많은 학우들의 바람이었던 생리공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환호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됐는지, 어떤 우려와 기대가 예상되는지 알아보자.

◆ 생리공결제,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도입됐나

생리공결제란 생리 때문에 결석을 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생리공결제를 시행한지는 벌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학교도 지난 8월에서야 도입했다.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생리공결의 악용이나 남용 문제, 생리결석을 일반 질병과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선뜻 생리공결제를 도입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은 왜 이제야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지? 이에 대해 학사지원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생리공결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2년 전부터 꾸준히 안전에 울랐지만 악용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 초부터 총학생회를 포함해 사회대 학장, 사회대 학생회 등에서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지난 8월 31일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기 총회 안건으로 생리공결제가 발의된 이후 지난 8월 총학은 이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본 설문조사에는 총 1361명이 참여했다. 이 수치는 많은 학생들이 해당 제도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설문 결과 주요 내용은 △생리공결 신청 시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 없다는 것 △생리 공결 신청 시 1회 당 이를 이상의 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생리공결의 경우 출석 인정에 대한 교강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설문 결과는 학교 측에 전달됐다.

한편, 학교차원에서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경영학과와 아랍어과 등에서는 학과 재량으로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 생리공결제 신청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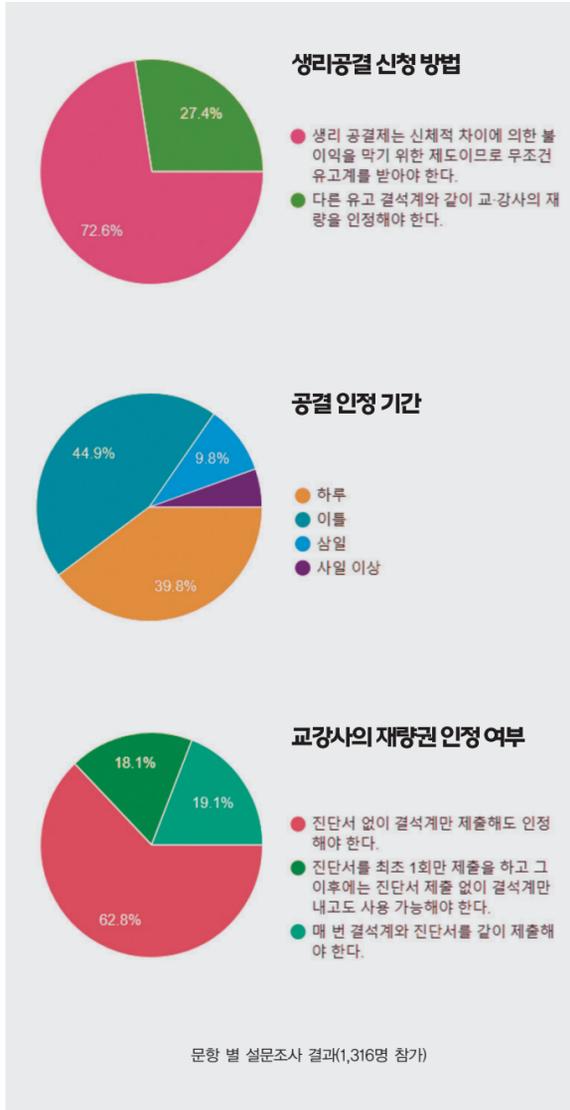
생리로 인한 유고 결석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에 첨부된 유고결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중 여학생이며 인정기간은 생리기간이다. 신청은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출석 인정 횟수는 학기중 2회고, 이는 일반 유고결석 인정 범위인 ‘학기당 1/4선 이내’와는 별도로 인정된다. 중간·기말 시험에 대한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생리결석제는 기존 유고결석제와 같이 교강사의 재량이 존재한다.

◆ 찬성 측, “생리는 인정받아야 하는 신체적 차이”

다음은 지난 8월 총학생회가 실시한 생리공결제 설문조사 ‘기타’란에 기입된 의견이다.

“가임기의 모든 여성은 생리를 겪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생리로 인한 불편함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저처럼 몇 달에 한번은 앓아 눕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하기만 할 뿐 아픔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생리를 하고도 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악용할까봐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악용이 무섭고, 내가 얻을 수 없는 ‘편의’를 남이 받는 게 싫어서 생리공결에 반대하는 사이, 어떤 사람은 아파도 학점 때문에 수업에 가야만 합니다. 본인이 돈 주고 듣는 수업을 놓치는 걸 감행하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게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리 학생의 절반 정도가 공통적으로 겪는 불편이라면, 이를 감수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생리공결을 찬성하는 측의 주된 의견은 위와 같이 악용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찬성 측은 제도의 악용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지 따르기 마련인데, 이 잣대를 생리공결제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은 수업 불참을 통해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고, 그런 책임을 감수하고 결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생리통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생리통을 겪는다고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병결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제도의 악용이 우려돼”

반대 측은 이 제도가 생리통이 매우 심한 학우들이 휴식을 할 수 있게 사용된다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중대신문(2011.10.04.)을 참고하면, 중앙대의 경우 2010학년도 1학기 하루 평균 생리공결 신청자는 189명인 데 비해 어린이날(5월 5일)을 기준으로 전날(5월 4일)에는 335명, 다음 날(5월 6일)에는 379명의 학생이 생리공결을 신청했다. 또한 석가탄신일(5월 21일) 전날(5월 20일)에도 평소보다 많은 238명의 학생이 생리공결을 신청했다. 서강대의 경우 생리공결제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단순히 일반결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학기의 시범운영 후 생리공결제를 폐지했다.

이처럼 반대 측은 다른 학교 사례처럼 생리공결제가 일반결석을 공결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는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계조차 거부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이 시점에서 생리공결제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자체적으로 생리공결제를 시행해왔던 학과들의 사례

학교 내 몇 개의 학과들은 이미 전공수업에 한해 생리공결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다. 우리학교에서 가장 먼저 생리공결제를 시행해왔던 단과대는 경영대다. 경영대는 경영대학 교수회의를 통해 지난 2014년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시행했다. 경영대 생리공결제는

경영대 전공 및 이증전공 여학생에게 경영대 개설 강의에 한해 시행됐다. 생리공결 확인서의 발급 횟수는 1인 월 1회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발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은 영구히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경영대 측은 “현재까지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 악용 사례가 들려오고 있으나,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해당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무영(경영·경영 15) 경영대 학생회장은 “경영대에서 진행됐던 생리공결제가 외대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기존 경영대가 시행했던 제도는 확인서를 1인 월 1회, 한 학기에 4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발급 횟수를 1인 한 학기 2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진정으로 여학우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생리공결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한 학기 4회 제한으로 사용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아랍어과는 경영대 뒤를 이어 지난해 4월 27일부터 생리공결제를 시행했다. 아랍어과는 당시 조교였던 김종훈(아시아언어문화·아랍 11) 씨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다. 제도 운영 방식은 생리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우가 아랍어과 학과장실(본관 308호)에 방문해, 생리유고결석확인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아랍어과 학과장 직인을 받은 후 해당 수업 교·강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횟수는 월 1회로 제한했고, 교수 재량을 인정하는 등 기존의 유고결석제와 다르지 않게 운영했다. 학과는 신청서를 결석 사유 발생일 후 14일 이내에 별도의 처방전 없이 교강사에게 제출하게 했다. 학과측은 한 달 기준으로 5~6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고 특별히 악용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 우리가 바라는 생리공결제와 앞으로의 과제

지난 8월 31일 도입된 우리학교의 생리공결제도는 학생들이 주장했던 방향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생리공결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한 학기에 두 번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정준애 학사종합지원센터 대리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한 학기에 두 번으로 횟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힌 뒤 횟수 증진은 논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은 생리 결석은 기존의 유고결석과 달리 출석 인정에 대한 교강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생리공결제는 일반 유고결석과 같이 취급되므로 교강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상태. 본 제도가 학생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정되기 위해선 부작용 없는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이 우선이다. 한편, 악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이고 어떤 제도를 통해 방지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우려해왔던 악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학우들이 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중앙대의 사례처럼 공휴일 전후로 생리 공결 사용 급증하는 모습은 생리공결제가 일반 결석을 대체하는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 생리공결제 도입의 선두 주자였던 서강대는 이런 이유로 3학기 만에 이른 폐지를 겪었다. 우리학교가 이런 모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임을 명심하고, 양심에 따른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생리공결제를 바라보는 양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여성의 특혜로 생각하지 않고, 신체적 ‘다름’ 으로부터 생겨난 불편함을 배려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보는 시선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학교 총장 선출, 어떻게 해야 하나



11월 17일과 24일 이틀 동안 우리학교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총장은 교수와 교직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자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전국 대학교에서는 총장 간선제와 직선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먼저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가 무엇이며 장단점

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학교 총장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며, 선출 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생 대표의 입장은 어떠한지, 전망과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총장선출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와 그 뒤로 이론 캠퍼스 본관이 보인다

◆ 총장 간선제와 직선제

간선제는 '간접 선거 제도'의 줄임말이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간접선거(간선제)란 일반선거인은 소위원선거인으로써 중간선거인을 선거하는 데 그치고, 그 중간선거인이 대통령이나 의원 등을 선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성원 전체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만 선거권을 갖는 제도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총장 선거에서의 간선제는 '완전한 직선제'가 아닌 경우, 즉 우리학교와 같이 '모든 구성원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간선제'와 '직선제'의 용어 사용에 있어 이 같은 맥락을 따르고자 한다.

총장 간선제는 일반적으로 대학 구성원별 대표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원과 구성 비율은 각 대학마다 다르다. 보통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수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간선제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대학 경영과 개혁에 전문성을 갖춘 총장을 발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반면 교수를 제외한 학생과 교직원 등의 구성원이 선거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구성원 전체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직선제는 '직접 선거 제도'의 줄임말로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대학교 총장 선거의 경우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에서 직선제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 투표를 통한 후보자 선출 이후 국립대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립대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임명을 결정한다.

직선제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 민주적이다. 하지만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돼 교수사회에 파벌과 반목을 낳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가 공약을 남발해 학교 개혁을 저해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 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

현재 우리학교 총장 선거에서 선거권은 교수에게만 주어진다. 즉 학생, 교직원, 교수 구성원 3주체 모두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를 간선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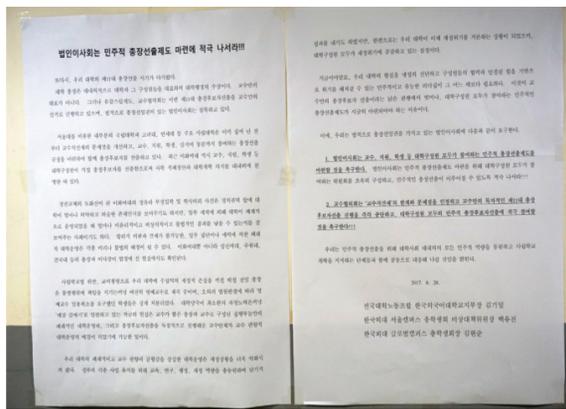
총장 선출 제도는 우리학교 교수협의회 (총장후보선출규정)에 명시돼 있다. 규정 제2장(총장후보추천위원회) 2항 '총장후보는 재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득표순위에 따라 2인을 선출한다.' 제5장(선거 및 투·개표 절차) 제18조 1항 '선거인 명부작성일 현재 본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은 총장후보를 선출할 선거권이 있다.' 제20조 1항 '선거는 재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에 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들을 통해 총장후보자 선거권이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에게만 부여되는 현행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 또한 규정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장선거는 우리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실시한다. 입후보자가 5인 이하의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2인의 후보자를 정한 뒤 결선투표에 의해 총장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고, 입후보자가 6인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입후보자 중 다득표순으로 5인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 결과에 따른 1, 2위 총장후보자를 선출한 뒤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는 큰 이견이 없을 경우 1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다.

◆ 우리학교 총장 선거제도, 왜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학교 총장선거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총장선거제도가 학교 구성원 전체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총장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교수 복지 향상 공약에 비해 학생, 교직원을 위한 공약의 비중이 적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투표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교수를 위한 복지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후보자들은 △4년 내 평균 임금 2,000만원 인상 △자녀등록금 지원 확대 △명절 상여금 지급 △보직 증복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교수 복지카드 발급 △주말대출용자보 증지원 △연구업적평가 부담 완화 △교수 연구 아파트 건설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학생과 교직원 등 다른 구성원을 위한 공약은 앞선 공약보다 부신했다. 학생들을 위한 공약인 △20~20 장학금 수혜원칙 시행 △장학금 수혜율 50%로 향상 △본교출신 대학원 장학생 확대 △취업지원제도 강화 등 직접적인 학생 복지와 장학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특히 학생들이 관심 갖는 항목인 장학금 수혜율 향상이나 취업지원제도 강화 공약의 경우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학생 등록금·장학금 확충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후보자 공약도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교직원 복지 공약은 전무하거나 거의 없었다.

우리학교 규정집 7장 2절 90조 2항에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라고 총장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총장은 교수만을 대표하는 역할이 아닌 대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선출 과정에서 보여진 공약만 놓고 보자면 학교 구성원 전체를 위하기보다 다소 교수에게 치우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



▲ 법인 이사회에 총장선출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자보

◆ 다른 대학 상황은?

타 대학이 현재 시행중인 총장선거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 씨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교수와 학생이 총장선출제도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이화여대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4자 협의회를 구성해 투표 방식을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창 2% 비율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개설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김혜숙 신임 총장이 당선돼 총장으로 임명됐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41개 국공립대 중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현직 총장 기준)이다. 부산대는 2015년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국문학과

하고현철 교수가 투신하는 등 총장선거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교육부에 저항한 결과로 직선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부산대는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 따라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 선거인을 선정한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또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위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국공립대 중 제주대, 목포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등 4곳은 다음 해 2월 총장 임기가 만료돼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총장 직선제로의 전환을 이미 확정했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한양대, 건대 등의 사립대와 부산대를 제외한 40개의 국립대가 해당한다.

◆ 학생 대표의 입장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유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현재의 총장 간선제는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교직원, 교수 3주체 모두가 선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교수들만 참여하는 비민주적인 선출제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선출 방식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백 비대위원장은 "투표권이 교수에게만 부여되다보니 총장의 주요 공약이 교수들에게만 치우쳤다. 또한 학교의 중요사항 결정에 학생이나 교직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매우 부족하고 있어 교수들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총장 선출 제도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3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를 정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협의기구를 통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법인 이사회, 교수 협의회와의 면담을 계속해서 이어가갈 예정"이라며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노조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다양한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물론, 서울캠퍼스의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이 대표성을 띠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와 연계한 주장과 활동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표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망과 한계

직선제와 간선제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선제는 절대선이고, 간선제 방식은 절대 악이라고 흑백논리로 규정하게 되면 이후의 합의와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가에 대한 여부다.

현재 우리학교 총장선출방식은 모든 구성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민주적인 선거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 11대 총장 선거까지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선거가 머지않은 시점이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총장 선출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선출제도 개정을 요구한다면 학교 내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총장 선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앞서 법인 이사회를 통한 규정 수정과 같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는 총장 선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와 합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화여대와 부산대의 경우처럼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가 대화일 것이다. 대화를 통한 민주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 우리학교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전환욱 기자 95hwanwook3132@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18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8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17.10.13.(금) ~ 10.30.(월)	2017.11.17.(금) ~ 12.04.(월)
고사장 발표	11.08.(수) 15:00	12.13.(수) 15:00
면접전형	11.11(토) 09:30 예정	12.16(토) 09:30 예정
합격자 발표	11.23.(목) 15:00	12.2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23.(목) ~ 11.29.(수)	12.28.(목) ~ 2018.01.03.(수)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영어교수학습지도학과(ELT)
- 나.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ELT CD)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영어Writing 포함)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 라. 학점인정 혜택(한국외대 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
- 마. TESOL연구과정 수료자 우대
- 바.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 사. Internship 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 TEL. 02-2173-3521~2 FAX. 02-2173-3358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나이 그날, 안심하고 보낼 방법은 없나요?

'릴리안'을 비롯한 10종의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출물질(1·2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200여가지 물질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 생리대를 쓴 여성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릴리안 측의 복잡한 환불절차와 낮은 환불 가격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증폭시켰고 일반 일회용 생리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번 사회문화면에서는 방출물질이 검출된 생리대와 이것에 대한 대체품으로 주목받는 다양한 여성용품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충격의 발암 물질 검출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실시한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에서 사용된 생리대 제품명을 공개했다. 전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스타이렌'이 발견됐고 일부 생리대에서는 발암성 1급 물질인 '벤젠'도 소량 검출됐다. 이외에도 발암성 1급 유독 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 피부 유해성 발암 물질인 '자일렌', 피부 자극 물질인 '헵탄' 등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리대 제품명은 표(1)과 같다.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식약

no.	업체	브랜드명
1	P&G	위스퍼 보송보송케어울트라날개형
2		릴리아 팬티라이너 순수한면 울트라슈퍼가드
3	깨끗한나라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
4		릴리안 로즈향
5	엘지유니참	쓰피 바디피트 볼록맞춤 울트라슬림날개형
6		쓰피 바디피트 쿠앤크 울트라슬림 날개형
7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순면
8	유한킴벌리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9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순면커버 일반
10		좋은느낌 울트라중형 날개형에이
11	트리플라이프	그나렌시크릿면생리대

처의 위해 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입장과 달리 실제로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은 많았다. 여성환경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생리 주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한 사람이 65.6%(1977명), '생리혈 감소'를 호소한 경우가 85.8%(25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생리대와 접촉한 부위가 통증과 질염 혹은 자궁내막염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깨끗한 나라(릴리안 측) 제품 사용자인 진민지(동양여·인도어 16)씨는 "생리 양이 확 줄고 갈색혈이 지속됐고 가끔 피부가 아리는 느낌도 들었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

◆고구마백 개 먹이는 대처법

깨끗한 나라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릴리안 생리대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 하지만 환불접수에는 고객정보와 구입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반드시 박스로 포장한 후 택배기사에 전달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환불 가격은 소형은 개당 156원, 중형 175, 대형 200원, 오버나이트 365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불편한 환불 절차와 날개 기준 접수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식약처는 문제가 터진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이 들끓은 후 식약처는 지금까지 늘 해 오던 품질검사를 하며 '뒷북 대응'을 했다. 또한 이번 제품명 공개에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실험 결과에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검증(peer-review)' 과정

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 신뢰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여론이 들끓자 지난 4일 제조사의 동의를 얻었다며 제품명을 모두 공개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은 실험 연구자 측에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말을 뺐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생리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유기능 일회용 생리대, 빨아 쓰는 면 생리대의 매출이 급증했다. 유기능 일회용 생리대에는 영국 제품인 △나트라케어 스페인 코튼 하이테크 유한회사의 제품인 △마스미 이탈리아 생리대 브랜드 △콜만 등이 있다. 이런 유기능 생리대는 일반 일회용 생리대 보다 2~3배 비싸지만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한 지금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도 잇따라 유기능 생리대를 출시하고 있다. 빨아 쓰는 면 생리대에 대한 관심은 간단한 방법과 '제 몸에 맞는 생리대'라는 인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면 생리대DIY(Do IT Yourself)' 에도 눈을 돌리게 했다.

또한 일반 형태의 생리대와 달리 실리콘 재질의 '생리 컵'이 새로운 대체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리컵은 의료용 실리콘 혹은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종 모양의 생리용품이다. 질 내에 삽입하여 생리혈을 받아내는 방식인 생리 용품으로, 기존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이 가지고 있는 독성 쇼크 증후군의 위험을 보완한다. 개당 2만~4만원으로 4~12시간 안에 꺼내 세척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며 한 번 구매하면 10년 정도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생리컵, 너가 궁금해

최근 온 스타일(ONSTYLE)의 '바디 액츄얼리' 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내 최초로 생리컵에 대한 방송을 해 큰 이슈가 됐다. 바디 액츄얼리에서는 생리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실제 사용 후기까지 알려줘 많은 여성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흔히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이에 대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Q1. 삽입형 생리 용품이기 때문에 질 입구 조직 손상 위험이 있지 않나?

A : 생리컵은 생리혈이 떨어지는 자궁경부 바로 아래쪽 고정돼 피를 받아내므로 질 입구 조직 손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질 입구 조직은 소위 말하는 '막' 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다.

Q2. 피가 역류해서 자궁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나?

A : 사람의 신체구조 상 누워 있더라도 자궁은 질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피가 역류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Q3. 구매방법과 사용방법은?

A : 지금은 생리컵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직구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생리컵이 FDA 승인을 마친 의료용품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리컵의 식약처의 수입 및 제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이기에 때문에 국내에서 별도의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한 생리컵 수입업체가 수입 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생리컵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몸에 맞는 생리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생리컵의 길이, 단단함, 혈을 담을 수 있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질의 길이, 생리혈의 양, 손님의 강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생리컵을 골라야 한다. 직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직구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 '핑크다이아리'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 '이치앤모어' 같은 여성 전용 사이트에서는 생리컵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직구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용 법은 다음과 같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첫째, 생리컵 삽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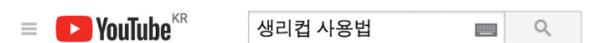
1. 자신에게 맞는 △C자△자△핀치△다이아몬드 접기 중 하나를 골라 생리컵을 접는다.
 2. 생리컵을 질 내부에 삽입하기 편안한 자세를 잡고 질 내부에 삽입한다.
 3. 질 내부에 완전 삽입 후, 생리컵을 부드럽게 놓으면 생리컵이 퍼지면서 질 벽에 고정된다.
 4. 생리컵 아래 부분을 눌러준 후, 360도 회전시키면 생리컵이 질 내부에서 잘 퍼진다.
- ※주의사항: 처음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에 생리컵을 넣어 1-2분 간 소독한다.

둘째, 생리컵 제거하기

1. 편안한 자세를 잡아준 후, 손가락을 넣어 생리컵의 아래 부분을 살짝 눌러 공기를 뺀다.
2. 생리컵의 아래 부분을 잡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밀어 당겨준다.
3. 혈이 쏟아지지 않게 기울여서 생리컵을 완전히 제거한다.
4. 생리컵을 비우고 뜨거운 물로 씻어준 후 다시 사용한다.

※주의사항 : 생리컵은 평소에는 물로 세척하면 된다. 생리가 끝나고 다음 달의 생리까지 사이에 보관할 때는 소독이 필요한데 끓는 물에 생리컵을 1-2분 넣어 살균하면 된다. 생리혈의 양이 많을 때는 4시간에 한 번, 양이 적을 때는 12시간에 한 번 비우면 된다.

※자세한 동영상 설명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다.



이하정 기자 94haj@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흡션(HUFShion) 피플

곰돌이 푸 같이 귀엽게 생긴 남자가 교내를 돌아다닌다. 누구보다 귀엽고 발랄하게 걷고 있는 그의 모습에 눈에 사로잡혔다. 기자는 포근한 인상을 주는 윤용재(경영·경영 17)씨를 1011호 흡션피플로 선정했다.

기자는 포켓몬같이 발랄하던 그를 따라가느라 땀을 흘렸지만, 땀의 대가인지 그는 흔쾌히 흡션피플 제의를 받아들였다.

기자(이하 기) : 항상 웃을 고를 때 고민이 많이 돼요! 도 대체 상의에 하의를 맞춰야 할지, 양말에 맞춰야 할지? 웃을 고를 때 상의랑 하의 중 어떤 걸 먼저 고르세요?
용재(이하 용) : 저는 먼저 상의를 고르는 편이에요. 일단 하의보다 상의 개수가 4배는 많아서 자연스럽게 상의를 고르고 하의를 맞춰서 입는 편이에요.(웃음).

기 : 혹시 줄무늬 매니아? 줄무늬 있는 옷을 주로 입으시나요?
용 : 사실 줄무늬는 안 좋아해요. 가로 줄무늬 옷을 입으면 몸이 더 커 보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사실 저도 즐겨 입지 않는데 오늘따라 입고 싶더라고요. TT 그냥 무지, 단색 옷을 좋아해요 심플하고 멋 내기도 편해서요.

기 : 동그란 배가 매력적인데 곰돌이 푸를 닮았다고 들어보셨나요?
용 : 일단 제 배는 태생부터 함께 해 온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ㅎㅎㅎ 마침 옷 색도 갈색 계열이라 귀엽고 발랄하게 곰돌이 느낌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물론 볼품 없지만) (그는 이내 울상을 지었다)



기 : 평소 흡시 꿀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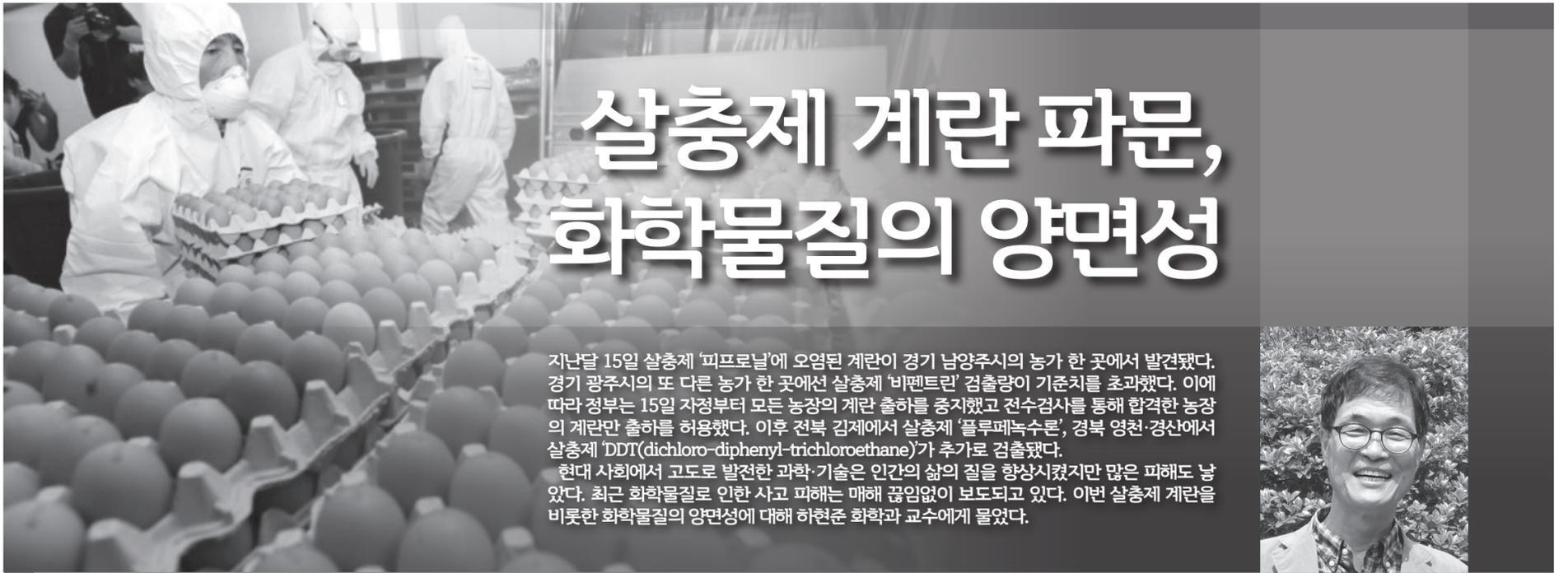
용 : 꿀 정말 좋아합니다! 달달-한 꿀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음식은 무엇보다도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 1회 무조건 섭취합니다.

기 : 요즘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는 것 같이 날씨가 제멋대로예요. 이런 날에는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용 : 정말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네요 그래도 일단 아직 더워서 반팔 위주로 입고 가디건을 따로 챙겨서 아침, 저녁에 걸쳐 입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꿀을 찾으러 가는 곰돌이 푸처럼 용재씨는 밥을 먹어야겠다면서 해맑게 기자와 인사를 나누고 총총 사라졌다.

정동민 기자 95won01000@hufs.ac.kr



살충제 계란 파문, 화학물질의 양면성

지난달 15일 살충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경기 남양주시의 농가 한 곳에서 발견됐다. 경기 광주시의 또 다른 농가 한 곳에선 살충제 '비펜트린'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했고 전수검사를 통해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했다. 이후 전북 김제에서 살충제 '플루페녹수론', 경북 영천·경산에서 살충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가 추가로 검출됐다. 현대 사회에서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많은 피해도 낳았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피해는 매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양면성에 대해 하현준 화학과 교수에게 물었다.



하현준 화학과 교수

Q1 처음에 검출됐던 살충제 성분이 '피프로닐'이다. 이후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DDT' 등 다양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러한 살충제들이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화학물의 효과는 항상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살충제의 경우 인간을 위한 약이 아니다. 인체에 절대 좋을 수 없는 화학물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살충제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물질인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과실주인 와인도 좋은 향과 풍미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지만, 기본적으로 알코올이라 불리는 에탄올이 들어있다. 에탄올의 경우 몸에서 배출이 잘되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에탄올보다 분자가 작은 메탄올은 다르다. 메탄올은 독성물질이라 섭취 시 실명,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 메탄올은 대부분의 과실주에 소량 들어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와인을 즐겨 마신다. 항암제도 마찬가지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복용하지만 부작용으로 탈모와 소화불량이 온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지금 문제되는 살충제 계란의 경우도 체내에 쌓인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기 전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다. 물론 신체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은 천차만별이지만 계란을 먹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화학 물질의 위험성은 체내 축적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체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소금도 치사량이 있다. 많은 양의 살충제 계란을 장기적·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분명 안 좋은 영향이 있기에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돼선 안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양계장에서 A4용지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닭 한 마리를 키운다.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닭을 키우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며 계란 생산량을 극대화한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에게 계란을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인간의 경제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욕심이 살충제 계란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가 된 계란을 전량 회수 및 재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태에 대해서 정부와 농가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Q2 살충제 계란 파문이 유럽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가?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들의 작용원리는 균주들의 중추신경 작동을 마비시켜 진드기를 죽이는 방식이다. 닭의 체내로 살충제가 흡수되고 화학 성분이 닭의 혈관을 타고 흐르면 그 피를 먹는 진드

기가 죽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살충제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 어떤 화학물질이든 해충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성분이면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화학물질·의약품은 개발 때 안전성 검사를 거친다. 안전성 검사는 화학 물질이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과 동시에 해가 없는 양을 측정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상시험을 장기간 진행한다. 살충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올 수 있는 역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살충제 DDT가 이런 경우다. 개발 당시 살충 효과가 좋아 널리 사용됐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분해되지 않는 DDT가 토양에 쌓여 여러 동·식물들에게 축적됐다. 뒤를 이어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인간 또한 많은 양의 DDT가 인체에 쌓였다. 이러한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해도 미래에 올 부작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Q3 양계 농가 외에도 식용 닭은 살충제로부터 안전한가?

살충제를 맞은 닭을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양계장은 식용 닭을 키우는 육계 농가와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로 나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가는 산란계 농가로 육계에서 키워진 닭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년 전 육계에서 키우는 식용 닭도 살균제가 사료에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식용동물 사료 원료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했고 사료 원료에는 항생제, 다이옥신, 성장호르몬, 살충제, 화학비료 성분 등 유해 성분이 다량 들어있었다. 우리나라 농가는 수입 사료로 건강할 닭을 키워 판매량을 높일 수 있었지만 이 경우 역시 결과적으로 토양 축적, 폐사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육계 농가에서 사료에 인위적인 살균 화학 성분을 사용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 조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못했다. 하루 빨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Q4 살충제가 검출된 김제의 농장주는 "농장에서 절대 살충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살충제가 어떤 방식으로 흡수됐을까?

토양, 사료 등 살충제가 흡수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토양의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물질이 쌓이는 곳이다. 하지만 쉽게 분해되는 자연물질과는 달리 화학물질의 구조는 레고를 부수듯이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균주에 의해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 그대로 토양에 축적될 가능성도 높다. 오염된 토양과 이로 인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자란 동·식물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화학물질을 축적한

다. 닭의 경우 비교적 먹이 사슬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꽤 과량의 살충제가 쌓일 수 있다. 김제의 해당 농가에서 닭을 방목해서 키웠다면 토양을 통해 살충제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Q5 지난 21일 의사협회가 "살충제 계란, 안심상황 아니다"라며 "만성독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만성독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독성은 그 부작용이 당장 나타나는 것과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 있다. 살충제의 경우는 주로 후자의 독성이다. 이를 만성독성이라 하는데 사실 만성독성은 그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유념해서 봐야 하는 문제다. 과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출시됐었다. 이 약은 입덧이나 우울증이 심한 임산부에게 처방됐고 직접적으로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로부터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는 문제를 낳았고 이 약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엔 이런 부작용에 대비해 까다롭게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줄었다. 화학물질 사용을 승인해주는 절차도 복잡하고 규제도 강하다.

Q6 이번 사태로 화학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화학물질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고 농장주들은 이를 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학 성분의 유무를 따지기보다 측정치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또한 화학물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화학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줬고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화학이 미디어를 통해 주목받다 보니 *케미 포비아(Chemistry Phobia)가 생긴 것 같다. 모든 물건, 식품은 사람이 만든 화학물로 이뤄져 있다. 화학물이 주는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케미 포비아(Chemistry Phobia): 생활화학제품을 꺼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화학을 뜻하는 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Phobia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

박주원 기자 94swj04142@hufs.ac.kr

부엉이들이 추석에 뭐해?

- 06시 07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힘을 합쳐 만든 명절 음식을 먹었다. 역시 추석 음식은 맛있어. 살 3kg 찌는 건 나의 행복.
- 09시 12분.** 성묘 드리러 가는 길. 항상 가는 길이지만 새로운 마음.
- 12시 23분.** 할머니 표 맛있는 점심 식단. 할머니의 손 때가 묻은 짬 음식들. 물배도 찬다.
- 15시 30분.** 이제는 낮잠 잘 시간. 배도 차겠다 잠이 솔솔.
- 19시 44분.** 추석 때는 매시간 먹어서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맨날 주워 먹지만 또 들어가네.
- 22시 13분.** 시작된 고스톱 게임. 옆에 있지만 해도 늘어나는 내 주머니.

- 06시 07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반기는 것은 알람 소리... 일어나기 싫다
- 09시 12분.** 노랑진으로 가는 길 지하철엔 사람이 없네. 다들 어디로 갔지
- 12시 23분.** 수업 듣고 밥 먹으러 가는 중. 오늘도 혼밥. 그래도 추석이니까 프리미엄 컵밥 먹어야지
- 15시 30분.** 하... 쉬는 시간인데. 오늘이 추석이긴 한 거니... 나에게 추석은 언제 올까
- 19시 44분.** 가족들에게 추석 전화를 돌렸다. 들리는 웃음소리에 나의 처지가 불쌍해진다.
- 22시 13분.** 집에 돌아가는 길. 다음 추석 때는 꼭 취업에 성공해 집에 가리라. 취준생은 사람도 아니었던가.



나는 왜 글을 쓰게 됐을까

사실 나는 글 쓰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다이어리처럼 사적인 글을 적는 건 더더욱. 그런데 이러나저러나 기사 쓰는 걸 7년째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지금. 이번 기회에 '내가 어쩌서 글을 쓰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대형서점에서 개최한 독후감 대회에 참가하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큰 상 한번 받지 못했었는데 서점 독후감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그때 상금이 20만원이었던 것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린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다. 상금을 받던 그때, 나는 처음으로 글 쓰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그 후로 스스로 글을 잘 쓴다고 착각하게 됐다. 그게 계기가 돼서 중학교에 입학해 신문동아리에 들어갔다. 사실 중학교 신문동아리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교지에 요약정리해서 실는 일만 하면 된다. 동아리에서 부장까지 하게 되자, 나는 '내가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나 교내 글짓기 대회에 성의껏 써서 낸 글들이 큰 상을 받지 못하자 내 글 솜씨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글을 쓰는 것이 싫어졌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됐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또 신문동아리에 들어갔다. 대학 진학 시 스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다. 그때부터 진로 희망 간에 나는 흥미가 없음에도 항상 '방송기자'를 적었다. 가끔은 글을 쓰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글'과 오랜 애증의 관계를 겪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기분이 항상 들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을 위해 결국엔 입시 논술까지 해야 했다. 논술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과연 소질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고 몇 번씩 울었던 것 같다. 이런 걱정과 달리 대학 진학도 논술로 하게 됐다. 인생에서 글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글쓰는 것'이나 '의 강점'이라고 믿기로 했다.

요즘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전엔 막연히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말해왔었다. 그러나 전공이 어문, 그것도 특수어인 태국어가 되니 무엇이 내 길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 고민을 할 때쯤 외대학보를 접하게 됐고, 학보를 통해 언론인이 내 길이 될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외대학보를 지원한 진짜 이유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내 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엔 대학에 가서는 글을 쓰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는데 막상 글만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대학보는 내가 몸담았던 중, 고등학교의 신문동아리 차원이 아니었다. 이곳에선 기획기사, 칼럼, 인물 등 다양한 기사가 작성된다. 학보는 나에게 실제 신문사 같은 큰 세계로 다가왔다. 이런 곳에서 내 이름이 쓰인 기사가 실린다니... 요즘은 기사를 쓸 때면 13살 소녀가 글을 쓰며 느꼈던 희열을 다시금 느끼곤 한다. 아직은 기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미숙하다. 하지만 이제 막 권태를 벗어났고 기자로서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성장을 학보를 통해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홍주연 기자



흔들리는 추

지난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인공적으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그 후, 북한은 핵실험이 '완전 성공'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 핵실험을 감지했을까.

기상청은 주로 지진파를 이용해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판단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크게 P(Primary)파와 S(Secondary)파의 두 가지 지진파가 발생한다. P파는 지진파 진행방향의 앞뒤 수평으로 진동하며, S파는 상하방향으로 진동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과 인공지진은 이 두 가지 지진파에서 차이점이 생긴다. 자연지진은 S파의 진폭이 P파보다 더 크거나 비슷하고, 인공지진은 P파의 진폭이 S파에 비해 크게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자연지진의 지진파는 파형이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인공지진은 초기의 P파가 두드러지고 이후에는 파형이 단순하게 나타난다. 진원의 깊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연지진은 지표면에서 10~15km 근처에서 발생하는 반면, 인공지진은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다. 기상청은 이런 방법으로 지진파를 분석해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구분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알아챘다.

우리나라에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200여 곳의 지진관측소가 있다. 관측소에는 '지진계'라는 측정기가 있다. 지진계는 바닥에

고정돼 지진이 일어나 바닥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지진계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지진계에는 고정되지 않은, 질량이 큰 추가 달려있다. 지진계가 갑작스레 움직이면, 추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력으로 인해 지진계와 반대방향으로 운동해 추 끝에 달린 펜이 종이에 흔들림을 기록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진관측데이터가 측정되는 것이다. 수평진동진자는 추가 수평방향으로 달려 있어 P파를 측정하고, 상하진동진자는 추가 수직방향으로 달려 있어 S파를 측정한다.

북한은 근 1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하고 주변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200여 곳에 퍼져 있는 추가 북한이 만든 인공지진으로 흔들리는 날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한다. 국제 사회 곳곳의 추를 흔들리게 하는 북한 정권은 결국은 스스로가 지진계의 추가 돼 흔들리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국제 사회와 함께 바닥이 돼야 한다. 결국에는 바닥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관성의 법칙이기에.

이재권 기자 94dlwo@hufs.ac.kr

우리, 페미니스트

지난달 종영한 KBS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는 현실의 부조리를 재치 있게 비판해 신선한 재미를 준 드라마였다. 특히 주연인 '변혜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부당한 성차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성이 주체적 인격체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대변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변혜영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변혜영의 등장엔 점차 강조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영향이 아닐까?

페미니즘, SNS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대개 극단적인 댓글이 상위를 차지한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는 '한남중' 등의 표현으로 남성을 혐오하며 그들에게 받은 차별을 되갚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식 유교 사상에 젖은 남성 우월주의자는 여성 혐오 태도로 페미니스트를 사회 혼란을 만드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댓글을 보노라면 필자는 자연스럽게 불편해지곤 했다. 그래서 당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뒤로 미룬 채, 페미니즘을 그저 복잡하고 민감한 존재로 마음속에 남겨 뒀다.

최근 도서관에서 나이저리아 소설가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Chimamanda Ngozi Adichie)의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We Should All be Feminists)'라는 책을 읽었다. 제목의 주어 '우리'는 남여 구별이 불확실한 2인칭 복수 대명사다. 작가는 페미니스트를 '모든 성별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

인문학칼럼 [일상을 스치는 인문학]

개념은 결코 새로운 차별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물론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운동과 표현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핵심은 분명 단순하고 상식적인 사상이다.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사회적 의무와 강박이 존재한다. 남자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가정을 부양할 의무와 '남자다움'으로 표현된 적극적이고 강한 성격에 대한 강박을 받고 있다. 여자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시댁의 수많은 요구와 간섭을 감내하며 희생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또한 '여성스러움'으로 표현된 조신하고 인내하는 성품을 갖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남자도 소극적일 수 있고, 여자도 카리스마 넘치고 적극적일 수 있다. 개인 성향 차이일 뿐이다. 남자다움, 여성스러움은 분명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우리는 이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극단적 페미니즘과 남성 우월주의. 무엇이든 양극단은 위험하다. 어느 쪽이든 한 쪽으로 치우치면 페미니즘은 사회 골칫거리로 인식돼 진정한 공론의 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다수가 과거 필자처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아가지 못한다. 페미니즘의 본질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생각임을 직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전환욱 기자 95hwanwook3132@hufs.ac.kr

개별자를 넘어서

최민서(국제·국제 13)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10호 학보에서 다룬 많은 사안들 중에 대기순번제 시스템 도입과 강의 매매에 관한 기사가 흥미롭게 쓰여 있어 비평하고자 한다.

학보는 2면 대학보도란에서 대기순번제 시스템에 관해 다뤘다. 대기순번제 시스템이 새 학기에 변경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만큼 시의적절한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길이가 다소 짧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내용을 짧게 줄여야 했던 탓인지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부재한 채 학교의 입장만 전달한 논조는 공감하기 어려웠다. 학교는 대기순번제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유튜브에 시연 영상을 게재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비관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글이 수강신청 기간 내내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그 중 많은 비판은 '수강신청의 폐해는 수업 개수나 정원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한테 내 앞에 몇 명, 네 뒤에 몇 명이 기다린다고 알려주는 방식에 있지 않다'는 논점이었다. 이러한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인프라팀의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만 전달하는 의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대기순번제 시스템에 관한 기사와 마찬가지로 3면의 강의 매매 암시장에 관한 심층기사는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에게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심층 보도인 만큼 그 길이에 있어서도 아쉬움 없이 심도 있게 보도됐다. 특히 모호한 강의 매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규정을 찾아보고 학교 행정기관에 문의해 답변을 받은 점과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여론을 보여준 점이 훌륭했다. 그러나 학보는 '강의 매매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치열한 수강신청 경쟁에 있다'고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강의 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찰하면서도, 그 '제도적' 해결 방안이 '강의 매매와 그 처벌 수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를 먼저 언급하며 구조 내의 일탈하는 개인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은 구조에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인식 개선에 달려있다는 모순된 논증 구조로써, 읽는 독자들을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사들의 시의 적절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구조에 집중하는 관점과 개인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균형을 잃은 점은 아쉽다. 보잘 것 없는 본 비평을 참고하여 2학기 학보가 힘차게 출발하길 바란다.

마음을 다잡을 시기

하철현(국제대·인도어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첫 번째로 1면에 실린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비리 및 중국어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기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임원의 공금횡령과 중국어 대학이 1,9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당한 것은 주요언론 및 SNS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큰 이슈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비싼 학생회비와 등록금이 횡령 및 사기사건에 낭용됐다는 사실은 어찌보면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외대 전 학우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들을 다룬 기사가 특집기사가 아닌 1면의 토막 기사로 얇게 다루어진 사실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쉽습니다. 물론 강의 매매 암시장에 연연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도 신학기 수강신청 기간마다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진행경과를 많은 학우들이 궁금해 하는 총학생회의 공금횡령, 중국어대 학의 보이스 피싱 사건과 강의매매 암시장의 경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1010호 학보에서는 전자를 더 밀도있게 특집기사로 다루는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면 '흡연권과 흡연권, 우리학교는?'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과 헌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가독성을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

로 좋은 글이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 기사의 내용은 글로벌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나타난 장소, 인물이 서울 캠퍼스의 사례만 다루어져 있어 글로벌 캠퍼스의 사례와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흡연권과 흡연권의 갈등 사례를 해결할 결론 도출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갈등 해결 사례를 제시해 주고 본 캠퍼스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를 명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아 마무리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9면 '미세먼지, NASA와 우리학교가 파헤친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과생인 필자가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용어와 계산결과가 많아 독자위원의 신분인 아닌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읽었다면 금방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1010호 학술기사는 우리학교와 NASA가 협력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다뤘다는 측면에서 1면을 모두 소비하더라도 기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글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서 서술했다면 좋은 기사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대학보의 대부분의 독자는 문과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관측장비의 기술적 원리와 연구원리에 대한 서술을 좀더 압축적이고 쉽게 풀어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승오(경영·경영 08)

청년창업가 한승오, 열정을 요리하다.

요즘 대학가에는 청년 창업이 열풍이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창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승오(경영·경영 08) 씨는 우리 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명일전통시장에서 청춘도장이라는 요릿집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도장은 지난 2월 16일 MBC '생방송 오늘저녁 대박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나이에 제법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자리 잡은 그를 만나 창업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후 계획까지 자세히 들어봤다.

Q1. '청춘 마켓', 그리고 그 안의 청춘도장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에 위치한 '청춘마켓'은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색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고 있는 '마켓'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마켓'은 아닙니다. 청년실업난 해소,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유휴 공간 활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물려 진행된 강동구의 청년 지원 사업 중 한 가지죠. 이러한 '청춘마켓'은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이 구청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창업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편으로 낡은 전통시장 속 방치된 유휴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를 시작은 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년들은 지원을 받으며 시작하는 만큼 그 공간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청춘도장은 명일전통시장 속 '청춘마켓'의 1호점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주재료로 하는 찹스테이크 집입니다. 강동구 야시장의 파워셀러로도 등극한 맛집으로 모든 메뉴가 맛있지만 특히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포크스테이크입니다. 질 좋은 고기에 청춘도장만의 특제소스를 더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Q2. 지금의 청춘도장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활동이 있나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일본어를 부전공했습니다. 부전공이던 일본어 공부에 대해 일본에 잠시 유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철판 요릿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어깨 너머로 배운 철판 요리 기술이 청춘도장을 차리는 데 꽤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행정연구원원에 다닐 때는 자기 계발 차원에서 한식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때 다닌 한식요리학원은 지금의 청춘도장 특제소스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춘도장이라는 가게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대학시절 한 검도 동아리입니다. 검도를 무척 좋아했고 나중에 나만의 도장을 만들고자하는 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와 저희 가게 이름을 청춘도장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인지 도장을 파는 곳인 줄 알고 전화가 잘못 걸려올 때도 많았습니다. (웃음)

Q3. 졸업 후 한국행정연구원원으로 일하셨는데, 연구원을 그만두고 청춘도장을 차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행정연구원원에서 미래 사회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주로 일본, 대만 등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조금



앞선 나라들을 연구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로도 계속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지속된 외국의 상황들로 미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곧 빈집이 늘어나 도시가 흉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는 곧 인명이나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미래를 봤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빈집떨이 사업을 계획했죠. 실제로 사업성을 인정받아 국토해양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사업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자금 확보가 어려웠고 당장의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요식업에 옛날부터 큰 뜻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빈집떨이 사업 실패 후 당장 돈이 급했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 청춘도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일전통시장의 청춘마켓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Q4.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닌 야시장의 청년 푸드트럭이 아닌 낡은 전통시장의 방치됐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가게입니다. 이러한 점이 청춘도장을 운영하는 데 가져다준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강동구에서 이벤트성으로 열리던 야시장이 있습니다. 낮에는 명일전통시장에서, 밤에는 강동구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시장에서 저희 가게가 대박이 나서 그 영향이 시장에까지 미쳐 시장 매출도 급등했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들도 자연스럽게 둘러보게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온 건 시장 상인들의 갖은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다양했어요. 먼저 손님이 많아져서 손님들이 저희 가게 앞에 줄을 서 옆 가게나 마주한 가게들의 장사를 방해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아진 손님들로 인해 너무 시끄러워졌다는 소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의 철판 요리 특성상 연기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유증기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불만을 제기한 주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상인연합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청춘마켓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온 저희 청춘도장과 같은 가게들은 이미 보증금과 임대료 면에서 구청의 도움을 받고 들어왔으니 다른 시장 상인들과는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역시도 제가 감당할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Q5. 앞으로의 청춘도장 운영 혹은 확장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시장은 가정식 대체식품인 HMR(Home Meal Replace) 시장, 즉 가정에서 바로 먹거나 간단히 조리해 섭취할 수 있는 '완전' 또는 '반조리' 형태의 음식시장입니다. HMR 시장에는 4가지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포장을 뜯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RTE(Ready To Eat)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RTH(Ready To Heat)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RTC(Ready To Cook) △조리용 식재료를 요리하기 편하게 씻어서 소분한 RTP(Ready To Prepared)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RTC 시장에 집중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 상품성 있는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해 창업하는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Q6. 청년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바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자신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사 전반적인 업무 시스템을 파악하기 쉽고 회사 대표가 하는 일들이 가

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이미지가 트레이닝을 미리 해 볼 수 있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성공할지 집중하는 것 보다는 실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창업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성공할지 집중하는 것 보다는 실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창업은 현실입니다!

